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외상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외상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외상

완성된 이름

외상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외상

한눈에 보는 기록

뜻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외자					
外上					
외상					
외상					
외주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11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외상'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 외상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외상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외자 사전 표기 요약	—	—	●→	●→	—	●→
외상 사전 표기 요약	—	—	—	—	●→	●→
외상 사전 표기 요약	—	—	—	—	●→	●→
外上 문헌 수록 표기	—	—	—	●→	—	—
외승 문헌 수록 표기	—	—	—	—	●→	—
외주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5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외자
17세기18세기20세기
- 외상
19세기20세기
- 외상
19세기20세기현재
- 外上
18세기
- 외주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6종

外上, 외자, 외주, 외상, 외승, 외상

외상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외상’은 17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외자’로 나타나고 18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外上’도 나타난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外上’은 한자를 빌려 적은 이두식 표기로서, 옛사람들은 이를 ‘외자’라고 발음했다.

다른 언어와 한자음

19세기에 나타나는 ‘외상’, ‘외승’, ‘외상’ 등은 이 ‘外上’을 한자음대로 읽은 것인데,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ㅟ’가 ‘ㅓ, ㅖ, ㅗ,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과 ‘·’와 ‘ㅓ’가 표기에 섞여 쓰이는 현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20세기까지 이두식 발음을 반영한 ‘외자’, ‘외주’와 한자 발음을 반영한 ‘외상’, ‘외상’이 섞여 쓰이다가 ‘외상’으로 굳어졌

다.



문헌 속의 외상

전체 용례 1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외자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외자

출처 1690 역어유해 하:50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除者來 외자 내다.

現代어 풀이

외상 내다.

18세기 외자, 外上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외자, 外上

출처 1728 청구영언 진본 27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아히야點心도 呼려니와 외자濁酒 내여라.

現代어 풀이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 탁주 내어라.

출처 1775 역어유해 보:38ㄱ

용례 03

66 문헌 용례

除帳 외자스장.

現代어 풀이

외상 장부.

출처 1790 인어대방 5:3ㄴ

용례 04

66 문헌 용례

外上으로 내여 갑다가 갑술 즉지 아니 주니.

現代어 풀이

외상으로 내어 가져다가 값을 즉시 주지 않으니.

19세기 외상, 외승, 외상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외상, 외승, 외상

출처 1880 한불사전 51

용례 05

66 문헌 용례

외상 [外上] 외상 닛타 외상 주다 외상으로 가져오다.

現代어 풀이

외상, 외상 놓다, 외상 주다, 외상으로 가져오다.

출처 1890 계우사 481

용례 06

66 문헌 용례

선전 외승 갑허기의 마음 노코 잇습더니.

現代어 풀이

선전 외상 갇았기에 마음 놓고 있었더니.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23

용례 07

66 문헌 용례

외상 外上.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외자, 외주, 외상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외자, 외주, 외상, 외상

출처 1902 신학월보 2:399

용례 08

66 문헌 용례

또한 감지 못할 빛이나 외상을 지지 말나 함이요.

현대어 풀이

또한 감지 못할 빛이나 외상을 내지 말라 함이요.

출처 1904 신학월보 4:126

용례 09

66 문헌 용례

돈이 업서 못 사는 지경에는 부득불 외상으로 주고.

현대어 풀이

돈이 없어 못 사는 지경에는 부득불 외상으로 주고.

출처 1908 치악산 상:56

용례 10

66 문헌 용례

고두쇠가 히 지고 어둡기를 기다리느라고 동구 밧 막걸리집에 드러안져서 돈은 감추어 두고
노주돈 써러졌다 핑계하고 외자 술만 먹다가.

현대어 풀이

고두쇠가 해 지고 어둡기를 기다리느라고 동구 밖 막걸리집에 들어앉아서 돈은 감추어 두고 노갓돈 떨어졌다 핑계
하고 외상 술만 먹다가.

외주 술값 억지 씨기.

㉮ 현대어 풀이

외상 술값 억지 쓰기.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외상의 보충 설명

옛사람들은 장부를 적을 때 물건이나 돈이 들어오는 것을 ‘上(상)’이라 적고 물건이나 돈이 나가는 것을 ‘下(하)’라고 적었다. 현대의 금전 출납부로 치자면 ‘수입’을 ‘上’으로 적고 ‘지출’을 ‘下’로 적는 방식이다. ‘外上(외상)’이란 ‘上’의 ‘以外(이외)’라는 뜻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물건을 팔았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外上’이라 적었다. ‘外上’은 이두식 표기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를 ‘외쟈’라고 읽었으나, 19세기 무렵부터 ‘外上’을 한자음대로 읽은 ‘외상’이 등장하였다. 한편 ‘외상’을 순우리말로로는 ‘원빔’ 또는 ‘민빔’이라고 했다. ‘원빔’은 형용사 어간 ‘외-’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원’에 값을 뜻하는 ‘빔’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의 의미를 멀다로 보아 ‘원빔’을 물건을 먼저 받고 값을 먼 후에 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 중세 국어의 ‘외-’는 일반적으로 그르다, 잘못되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된 수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빔’은 미리 데려온 또는 미리 가져온을 뜻하는 접두사 ‘민-’과 값을 뜻하는 ‘빔’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미리 가져왔다는 점에서 ‘민빔’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민-’이 쓰인 또 다른 예로 ‘민며느리’를 들 수 있다.

외상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 김무림 2020 《국어 어원 사전》 지식과교양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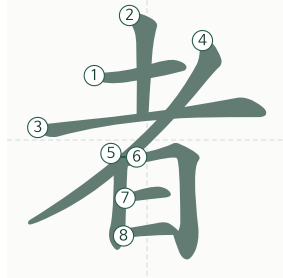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외상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者

뜻·음 늙자
총 9획 · 부수 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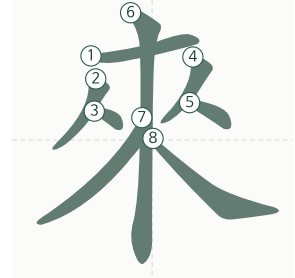


사전 9획 · 획순 그림 8획

hanja.wordrow.kr/한자/者/

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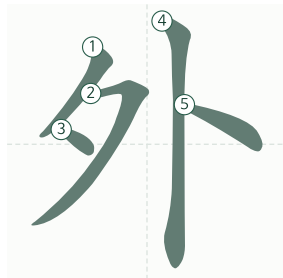
뜻·음 올래
총 8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來/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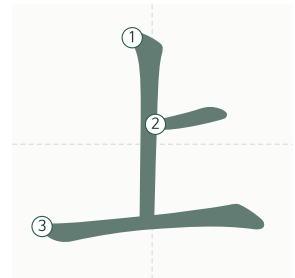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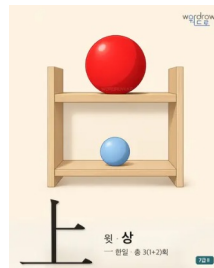
뜻·음 바깥 외
총 5획 · 부수 夕



hanja.wordrow.kr/한자/外/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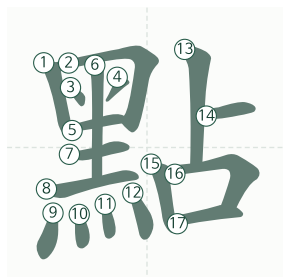
뜻·음 윗상
총 3획 · 부수 一



hanja.wordrow.kr/한자/上/

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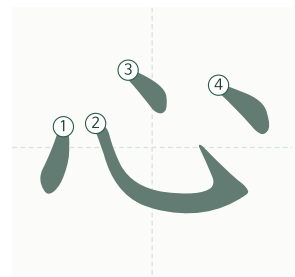
뜻·음 점점
총 17획 · 부수 黑



hanja.wordrow.kr/한자/點/

心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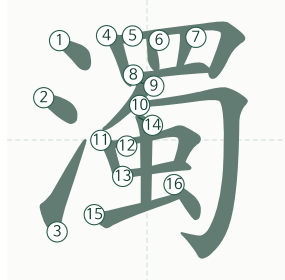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心/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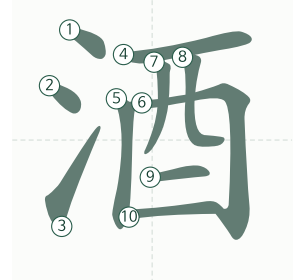
뜻·음 흐릴 탁
총 16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濁/

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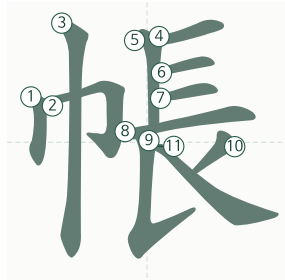
뜻·음 술 주
총 10획 · 부수 酉



hanja.wordrow.kr/한자/酒/

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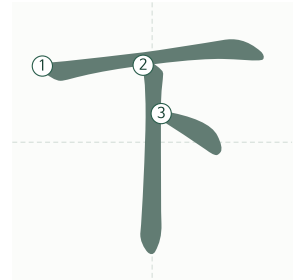
뜻·음 장막 장
총 11획 · 부수 巾



hanja.wordrow.kr/한자/帳/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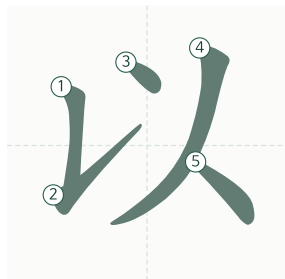
뜻·음 아래 하
총 3획 · 부수 一



hanja.wordrow.kr/한자/下/

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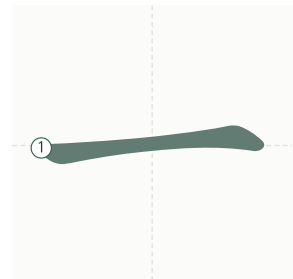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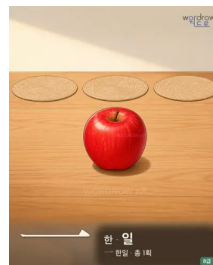
뜻·음 씨 이
총 5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以/

一

뜻·음 한 일
총 1획 · 부수 一



hanja.wordrow.kr/한자/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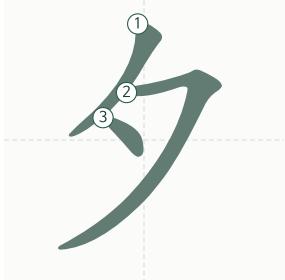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夕

뜻·음 저녁 석

총 3획 · 부수 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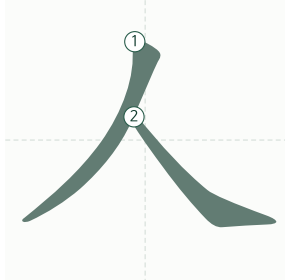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夕/

人

뜻·음 사람 인

총 2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人/